

## 사순절의 실천을 매일매일의 영적주제로 제안합니다.

우리는 매년 재의 수요일에 마태오복음 (마태 6,1-6. 16-18)에서 사순절동안 단식(극기)과 자선(자신을 줌)과 기도(주님께 자신을 포기)를 하라고 듣습니다.

재의 수요일 혹은 사순절의 강론에서 듣는 이 세가지 실천 사항, 즉 단식과 자선과 기도는 복음적 권고의 정결과 가난과 (주님께) 순명과 비슷합니다.

사순절의 실천 혹은 복음적 권고는 요한의 첫째 서간(2,16)에 나오는 큰 세 가지 악과 맞서게 하는데, 이 악들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악마와 육신과 세상입니다.

### “육의 욕망과

#### 눈의 욕망과

#### 재산의 자만”

이 세가지 악을 하나씩 풀어서 사순절의 실천 혹은 복음적 권고가 어떻게 이 악들에게 맞서며, 또 우리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는 어떻게 매일의 생활에서 영적 주제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의 욕망은 “관능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욕정”이라는 말이 더 잘 맞습니다. 육의 욕망은 우리의 타락한 육체가 참된 선이신 주님을 찾지않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찾는 것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지나친 것, 즉 육욕, 폭식, 술에 취하는 것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든 형태의 영적이나 육체적 게으름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가 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 주님의 영광과 형제 자매들의 선을 위한 고통이나 희생을 두려워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욕망들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대신에 “나, 나, 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우리는 극기와 자신의 통제와 정결로, 또 봉헌된 수도자들은 독신생활로 이 “나, 나, 나”에 맞서야 합니다.

회개는 결국 자신과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의 주교님은 재의 수요일에 재를 머리에 바르면서 항상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합니다 (마르 1,15 참조)

초코렛이나 페이스북이 나를 유혹한다면 사순절 40 일 동안 초코렛과 페이스북을 단식하는 것이 주님께로 향하는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단식은 사순절동안 만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모든 죄를 끊으려는 투쟁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사실 순간 순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죄를 이겨냈고, 또 우리 모두도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요한 성인은 세상으로 부터의 첫번째 큰 악인 악마와 육체를 “육의 욕망” 혹은 “관능적 욕망”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들은 사순절 동안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생각과 말, 단식, 회개,

금욕과 더 큰 자제의 행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항은 성사와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음으로서 더욱 강해집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사순절 동안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매일 실천해보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눈의 욕망”에는 어떤 악과 혼란이 있을까요?

모든 “번쩍 번쩍하는”, 화려한 것, 금은 보화, 그리고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물건과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겠지요.

“욕정”에는 탐욕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의 세상의 뽀짝거리고 시시한 것, 우리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육과 악마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생활 필수품이 우리보다 더 필요한 가족이나, 형제회, 교회 또는 세상에 돈을 기부하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실천보다 말이 쉽다고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간단히 하고, 의식적으로 가난히 지내고, 우리에게 돈이 충분히 있다면 기부함으로써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선의 좋은 점은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준 돈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고가는 돈이라고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 찾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자선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고, 우리의 재화를 바칩시다.

눈의 욕망은 사순기간뿐 아니라 매일 매일의 생각과 말과 가난의 행동, 자선, 기부, 자신의 봉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주님의 은총으로, 성사 특히 성체성사와 화해성사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또 매일 기도 특히 교회에서 추천하는 전례기도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강해집니다. (회칙 8 조 참조)

세번째로, “재산의 자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인 자만의 큰 죄가 속합니다. 자만, 허영, 허세, 그리고 세상 창조 이전부터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랐던 우리를 (에페 1,4) 부풀려 버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닌, 이기적인 자기 만족이나 자기 과장을 위한 모든 권력과 영광의 표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필리 2,6)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성교회에 대한 겸허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서, 매일 시간경(성무일도)을 기도함으로써, 매일 성서를 읽고 기도함으로써(렉시오 디비나), 매일 묵주기도 또는 Divine Mercy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서 이러한 허세의 생활과 자랑의 생활과 자만과 공허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 드립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1 테살 5,17 참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과 대부분의 재속 프란치스칸들은 사순절 동안에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마와 육과 세상에

대한 투쟁은 사순절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가 사순절때에 포기하고, 내어주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 매일 매일의 영적 주제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저희가 사순절의 회개인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매일 매일의 회개로 변화시킬수 있게 도와주소서. (회칙 제 7 조 참조)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악마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직접적인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 4,1-11 참조) 그러나 저희 모두는 아마도 매일 “육의 욕정, 눈의 욕정, 재산의 자만”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1 요한 2,16) 저희가 행한 사순절의 희생이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와 모든 프란치스칸 성인들의 본보기와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매일의 영적주제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승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옆에 더욱 가까이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가 결코 죄에 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저희가 악마와 육과 세상의 유혹과의 투쟁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